

제네바 OPEC總會 結果와 앞으로의 展望



金光鉉

〈國際經濟研究院·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1. 머리말

第60次 OPEC總會가 지난 5월25~26일 양일간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세계石油가 하루 200만배럴 이상 남아 돌고 있고 이에따라 産油國들이 油價引下壓力마저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OPEC회의에서는 産油量縮小 및 油價調整問題가 主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번회의는 각국간의 이해對立으로 현안문제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만 現油價凍結 및 대부분 회원국의 10%減産 등만을 합의하고 폐막되었다. 이는 사우디의 低油價·高産油政策의 벽을 깨뜨리는데 실패한 여타 회원국들이 가능한한 현재의 石油供給過剩幅을 줄이고 油價引下壓力을 막아보자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力學關係의 변화로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 온 OPEC는 이번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허약성을 드러내놓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대부분

산유국들이 減産 및 油價凍結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어느정도 단결된 힘을 대외에 과시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油價 및 石油生産 문제를 둘러싼 OPEC의 과제들을 앞으로 보다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 會議 結果

(1) 經過

이번 총회는 油價 및 産油量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산유국간에 치열한 이해대립을 보임으로써 회의벽두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번 회의중 각국간의 견해대립은 주로 사우디와 여타 회원국간에 있었다.

우선 사우디는 OPEC油價單一化를 실현하기 위해 리비아를 비롯한 高油價國들이 油價(배럴당40~41 달러)를 배럴당 39달러이하로 인하하여 이 선에서 OPEC油價를 82년말까지 동결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제의가 받아들여져야 油價를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하는 한편, 自國產油量을 축소 조정할 것이라는 것이 사우디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등 이른바 OPEC強硬國들은 사우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自國油價를 배럴당 32달러에서 현OPEC 基準油價인 36달러 수준까지 적어도 4달러 인상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石油供給過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우디가 自國產油量(日產 1천30만 배럴)을 850만배럴 수준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밖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등 穩健派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등 中道派는 現油價의 引下를 반대하면서 油價를 금년말까지 凍結시킬것을 제의하였으며 세계 석유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減產余力이 큰 사우디가 산유량을 축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인

油價를 동결하는 한편 대부분 산유국이 10%씩 감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會議의 결정사항이 집약된 共同聲明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OPEC는 油價問題에 있어서 지난 12월 발리총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現OPEC油價構造(기준油價: 배럴당 36.00달러, 最高上限油價: 배럴당 41.00달러)를 금년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사우디油價(현재 배럴당 32.00달러)만은 基準油價線까지 금년중 자유로이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울러 OPEC는 產油量問題에 대해 產油量減縮에 반대하고 있는 사우디와 전쟁으로 석유생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이란 및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OPEC회원국의 產油量을 6월1일부터 적어도 10%씩 각각 축소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OPEC는 총회직후 가진 비밀자료회담

사우디가 油價를 떨어뜨릴 目的으로 높은 產油水準을 유지함으로써 供給을 調整하고...

도네시아등은 OPEC회원국 전체가 產油量을 10~15%씩 감축할 것을 제의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외의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등 OPEC 穩建國들마저 油價引下를 요구하는 사우디 견해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석유수급의 균형을 위해 사우디가 대폭적인 減產을 단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었다. 이같은 穩健國의 이례적인 주장은 油價를 내린다는 것이 결국 石油收入의 減少를 의미하므로 산유국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락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회원국의 油價를 떨어뜨릴 目的으로 일부러 높은 產油水準을 유지함으로써 供給過剩을 조정하고 있다는데서 나온 반발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結 果

회의 결과 OPEC는 당초 목표로 했던 油價單一化를 위한 산유국간 油價隔差縮小, 석유수급균형회복을 위한 사우디의 減產誘導등에는 실패하였으나 현석유정세에대한 미봉책으로서 現

을 통해 기타회원국들이 現行油價水準을 금년말은 물론 내년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사우디가 금년 하반기중 自國油價를 배럴당 32.00달러에서 34.00달러로 2달러 인상하여 회원국간의 油價隔差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產油量問題에 있어서 사우디는 10개회원국의 減產決定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향후 자발적으로 自國產油量도 축소 조정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밖에 OPEC長期石油戰略문제에 대해 사우디와 입장을 달리해온 강경국들은 기존 전략안중에서 產油量調整문제등을 보완하는 선에서 원만히 타결하도록 사우디에게 약속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3) 會議직후 產油國動靜

회의 직후 일부 산유국은 마치 기다리거나 한 듯이 앞을 다투어 自國產油量 減縮內容을 발표하였다.

□ 特 輯 : 10%原油減産, 그 다음에는? ~~~~~

우선 카타르가 이번회의에서 결정된 10%減産幅을 훨씬 넘는 18%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카타르産油量은 종전의 하루 48만배럴에서 6월1일부터는 39.4만배럴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어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등이 각각 11%, 10%씩 감축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余他회원국들 역시 자국의 감산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번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적어도 10%씩 減産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OPEC산유량이 크게 축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석유가 여전히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자 油價引下壓力이 尙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산유국들은 自國産 原油의 公示價를 引下하여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즉 非OPEC會員國인 멕시코가 유가인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자국유

逼迫·油價急騰과는 달리 石油가 남아돌고 이에 따라 油價가 이례적으로 인하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OPEC회원국들은 산유국간 정치적, 경제적 利害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油價體系가 혼란에 빠져 있는 등 그 허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石油供給過剩·油價弱勢持續

우선 석유수급면에서 보면, 80년 4/4 분기중 이란·이라크전쟁으로 한때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세계석유수급정세는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호전되어 지난 3월이후부터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 가량 공급이 과잉되었으며 세계석유 備蓄量은 約50억배럴을 상회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세계 石油市場은 지난 2년동안의 需給逼迫·油價急騰과는 달리 석유가 남아돌고 이에 따라..

가를 배럴당 38.5달러에서 34.5달러로 4달러나 크게 인하하였으며 그동안 高油價를 고집해오던 리비아마저 배럴당 41.00달러에서 36.00 달러로 5달러나 대폭 인하할 움직임을 나타내었고, 그 밖에 쿠웨이트 등은 油價프리미엄을 전면철폐할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같은 현상은 OPEC창설 이래 처음있는 奇現象인 것이다.

한편 사우디는 이번 총회 직후의 비밀자료회담에서 自國油價引上 및 産油量減縮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총회에서 리비아등 高油價國이 油價를 인하조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현재 입장으로서의 現油價 및 産油水準을 당분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會議背景

그런데 이상과 같은 OPEC회의의 결과는 현 석유시장정세와 OPEC가 안고 있는 고민을 배경으로 나타난 苦肉之策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즉 세계석유시장은 지난 2년동안의 石油需給

이러한 石油供給過剩은 OPEC산유량이 지난 79년의 하루 3천1백만배럴에서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81년5월 현재 하루 2천5백만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대폭적 國際原油價上昇으로 세계景氣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② 각국이 에너지 소비절약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③ 石炭, 原子力, LNG등 代替에너지의 개발,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등에 따라 세계석유수요가 작년에 이어 금년중에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석유공급과잉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난 79년초이래 2년동안 150%나 상승해온 OPEC油價는 소비국 및 석유회사들로 부터 引下壓力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물시장에서는 거래가 매우 한산한 가운데 原油價格이 계속 약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대부분 OPEC산유국들은 이같이 석유인하압력을 받게되자 그동안 公示油價에 부과하여 오던 프리미엄을 철폐 또는 축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에콰도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일부 산유국은 자국산 重質油 公示價를 배럴당 0.5~2.5달러 인하하기도 하였다. 한편 現物油價는 아라비안·라이트油

OPEC 石油生産 推移

(單位：千배럴 / 日)

国 家	79年 (全体)	80年 (全体)	80. 11	80. 12	81. 1	81. 2	81. 1의 增加率(%)			生産能 力(81. 2현재)
							前月比	前年 末 比	前年 同月比	
사우디아라비아	9,529	9,926	10,364	10,259	10,264	10,264	0.0	0.0	5.3	11,300
이 란	3,119	1,467	700	1,200	1,200	1,400	16.7	16.7	-44.8	3,000
이 라 크	3,451	2,646	300	550	550	700	27.3	27.3	-80.0	4,000
쿠 웨 이 트	2,513	1,653	1,465	1,762	1,764	1,564	-11.3	-11.2	-36.2	2,800
아랍에미레이트	1,831	1,709	1,695	1,706	1,620	1,605	-0.9	-5.9	-9.2	2,485
카 타 르	,506	471	475	483	507	482	-4.9	0.0	5.4	650
베 네 수 엘 라	2,356	2,167	2,230	2,330	2,218	2,195	-1.0	-5.8	-0.2	2,400
나 이 지 리 아	2,302	2,058	2,062	2,026	2,092	1,943	-7.1	-4.1	-9.5	2,400
리 비 아	2,066	1,788	1,680	1,680	1,600	1,650	3.1	-1.8	-21.4	2,100
인 도 네 시 아	1,595	1,579	1,621	1,617	1,631	1,621	-0.6	0.2	4.4	1,600
알 제 리	1,116	942	900	900	900	900	0.0	0.0	-10.0	1,200
에 쿠 아 도 르	214	222	225	210	210	235	11.9	11.9	2.2	250
가 봉	205	175	163	162	165	165	0.0	1.9	-11.1	250
O P E C 計	30,802	26,804	23,881	24,886	24,742	27,722	0.0	-0.7	-16.8	34,435

의 경우 지난 12월의 배럴당 41.00~41.50 달러를 피크로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여 금년 5월 중순경에는 배럴당 32.5~33.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리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産 高級輕質油價는 같은 기간중 배럴당 42~43달러에서 公示價(배럴당 40~41달러)수준에도 못 미치는 35달러 내외로 대폭 하락하였다.

(2) OPEC油價体系的 혼란

한편 OPEC油價構造는 지난 77년 도하총회 이전만 하더라도 사우디 아라비아· 라이트油를 기준원유로 하여 一元体系를 형성하였으나 그 이후 이러한 유가체제가 多元化되어 각산유국이 자유로이 자국유가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79년 초에 들어서는 석유수급사정이 팽박해짐에 따라 公示價에 프리미엄 또는 割増料를 더불어 판매하기까지 이르렀다. OPEC석유체제의 혼란은 지난2년간 국제원유가폭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油價体系的 혼란은 곧 OPEC 카르텔의 붕괴 위험성마저 초래하는 등 OPEC조직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

으며 이를 의식한 OPEC회원국들이 다시 油價体系를 單一化함으로써 자신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단 깨어진 油價体系는 회원국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産油國間的 利害対立

OPEC산유국간에 드러내놓고 있는 상반된 이해 관계는 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우선 사우디를 비롯한 穩健派는 低油價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인 면에서 불 때 高油價上昇은 세계인플레이를 가중시켜 산유국의 수입물가 상승 및 外貨資産價値를 하락시키는 등 산유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소비국의 代替에너지 개발을 촉진시켜 세계 경제무대에 있어서 OPEC의 역할이 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역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특히 사우디의 경우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과 친밀한 관

□ 特 輯 : 10%原油減産, 그 다음에는? ~~~~~

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이유는 국내적으로 왕권의 보호, 아랍급진주의자들의 준동에 대한 국내치안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적위협(특히 이란, 아랍, 이스라엘 분쟁) 소련의 군사적 팽창주의 저지등을위해 방위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GCC(페르시아灣 協力 機構)창설을 전후하여 미국으로부터 고도의 최신병기 구입을 위해 美議會의 승인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반면,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등 강경국들은 高油價 低産油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산유국 대부분이 처진진제국 수입의 존도가 높는데 이들 선진제국의 수출 상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산유국의 석유 수출 가격 역시 이에 맞추어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들은 한계에 다다른 석유자원을 가능한한 아끼면서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의 계속적인 인상을통해 石油收入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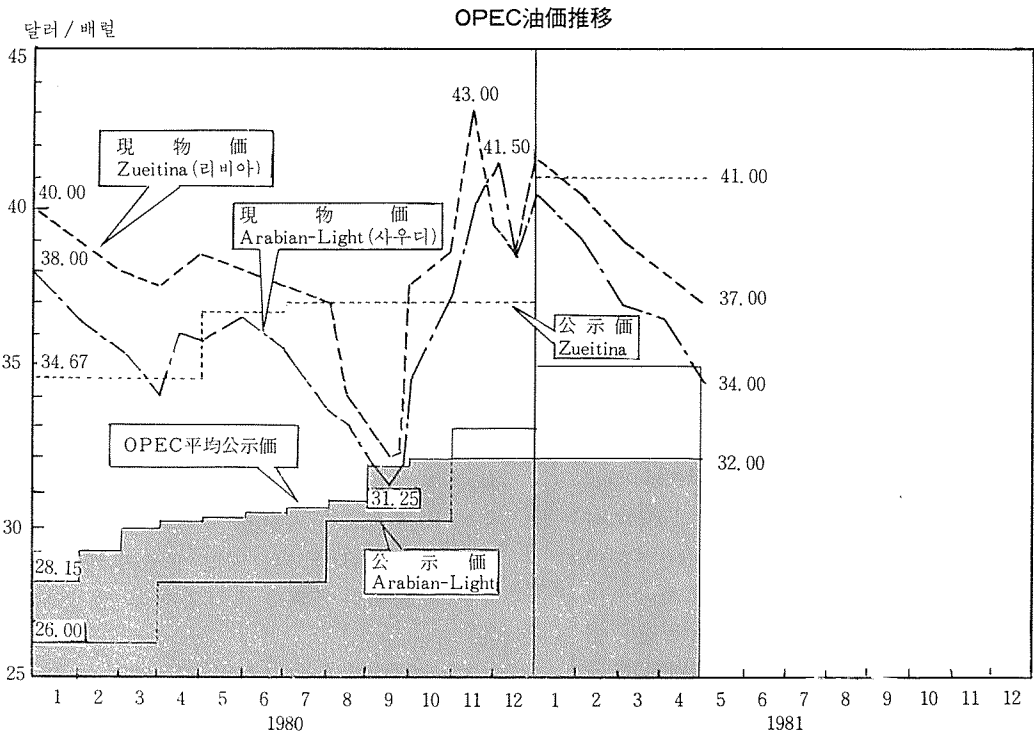
한편 정치적으로 이들국가는 미국 등 서방선

진제국과 관계가 원만치 못한데다가 OPEC 특히 아랍지역에서 사우디의 獨走를 견제하고자하는 입장에 있어 사우디와 계속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4. 評價와 展望

(1) 石油需給

이번 OPEC총회에서 10개회원국이 최소한 10%씩 감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OPEC 산유량은 종전의 하루 약 2천5백만배럴에서 6월부터는 하루 2천3백50만~2천3백 75만배럴로 하루 1백25만 배럴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OPEC 산유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석유공급과잉(OPEC석유상들, 하루 2백만~3백만 배럴 주장)은 완전흡수되지 못하고 하루 최저50만배럴 최고 1백70만배럴 정도의 공급과잉이 금년하반기 중에도 여전히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실제감산폭은 하루 75만배럴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供給過剩幅은 예상



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급과잉의 지속으로 세계석유 수급은 오는 82년 중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년말 경에는 계절적인 요인 및 세계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조짐등으로 석유수요가 늘어나 석유공급과잉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우디의 감산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회박한 실정이나, 만일 사우디가 여타국과 보조를 맞추어 자국 산유량을 10%정도 감산(하루 1천 30만배럴→9 백30만배럴)한다 하더라도 이란·이라크의 석유생산이 현재 하루 총 200만배럴 수준에서 82년까지 하루 450만배럴로 배증될 것으로 보여 세계 석유수급정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OPEC의 석유감산은 세계석유공

비 13.0%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우디가 금년 하반기중 여타국과 유가단일화를 위한 협상과정에 자국油價를 배럴당 34달러로 2 달러 인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만일 사우디유가가 이같이 2달러 인상되는 경우 OPEC평균공시가는 현재의 배럴당 34.9달러에서 금년말에는 35.7달러 정도로 0.8달러 정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하겠다. 한편 82년의 OPEC 유가는 세계석유수급정세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소 인상조정된다 하더라도 세계인플레이등을 보전하는 선에서 약 10% 내외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유현물가격은 OPEC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

原油 現物價格은 여전히 弱勢를 견지할 것으로 展望되며, OPEC는 油價單一化를 쉽게 解決할 수도...

급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게 됨으로써 세계경기가 회복되어 석유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 석유 수급사정이 전반적으로 팽박될 것으로 우려된다.

(2) 油 價

한편 이번 OPEC 회의를 계기로 OPEC 유가가 동결됨으로써 국제원유가격은 지난 2년간의 지속적인 높은 상승세에서 벗어나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인플레이 진정 및 경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감산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석유공급이 여전히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PEC회의 전과 마찬가지로 유가인하압력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데 이미 멕시코를 비롯하여 일부 OPEC 산유국들이 이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OPEC유가가 이번 총회의 결정대로 금년중 더이상 인상이 없다면 금년 평균으로 볼때 OPEC公示油價는 배럴당 34.9달러(OPEC가중 평균공시가기준)로서 전년

며 이같은 추세는 석유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한 내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OPEC는 지난 수년간 유가 및 산유량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산유국간에 분열상을 보여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세계석유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 산유국이 공동감산에 참여키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단결된 힘을 대외에 과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OPEC는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유가단일화 및 장기석유전략수립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OPEC 회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